

재한중국동포사회 변화와 동포단체의 과제

2023. 06. 23.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

Contents

재한중국동포사회 변화와
동포단체의 과제

- I. 간담회 취지
- II. 간담회 참석 인사
- III. 변화하는 동포사회 환경
- IV. 최근 주요 현안들
- V. 동포사회 대응여건의 변화
- VI. 토론: 동포단체의 대응

I. 간담회 취지

- ◎ 급격한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국내 중국동포 체류 형태의 변화로 인해 동포사회가 다양한 도전과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모국과 동포사회의 상호 발전을 위한 동포사회 및 단체의 효과적 대응 필요성 대두
- ◎ 국내 동포사회의 장기 체류자격(F-4, F-5 등)의 증가, 가족동반 이주의 증가등의 이주 추세에 따라 국내 동포 지역사회의 정주화 지역주민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 프레임 변화 요청 대두→ 재외동포청의 역할 요청
- ◎ 이에 최근 동포사회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각 동포단체의 향후 활동 및 협력 방안을 토의하고자 함

II. 간담회 참석 인사

언론단체 :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문현택(한중포커스), 조동우(한중데일리)

시민단체 : 김봉규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최재용(한국다문화이민행정협회)

학술단체 :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문제연구소)

문학단체 : 김경애 (중국동포문인협회)

여성단체 : 박옥선 (CK여성위원회)

지원단체 : 김동훈(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차 세 대 : 김부용(인천대), 박동찬(경계인의 몫소리연구소)

교육단체 : 문민(서울국제학원장), 이남철(전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

삼강포럼 : 정인갑, 장경률, 곽재석

III. 변화하는 동포사회 환경 : 부정적 이미지 대응

◎ G2 디커플링과 한중관계의 변화에 따른 동포사회의 도전

-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에 따라 한국과 중국간의 갈등 고조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한미안보동맹 중심의 정책 추진에 따라 국민들의 중국 및 중국국민(동포)에 대한 이미지 악화
 - 사드, 홍콩시위, 김치한복공정, 중국비밀경찰, 중국마약, 왕서방 부동산 등등
→ 투표권 및 건강보험권 제약(김기현 당대표)
- 민간의 역할: 한국과 중국간의 상호 부정적인 감정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더욱 확대
 - 지역 차원의 주민 활동: 마약예방캠페인 등의 공익활동 확대와 정치적 이념적 행사 자제

III. 변화하는 동포사회 환경 : 정주화 대응

◎ 재외동포사회의 인구변동에 대응한 동포정책 추진 필요성 대두

- 중국동포 한국사회 규모 증가 및 정주화, 노령화 진행

○ 국적별 체류현황

(2023.5.31. 현재, 단위 : 명)

계	중국	미국	우즈베키스 탄	러시아	캐나다	카자흐스탄
825,846	639,696	47,801	42,106	36,351	18,194	20,848
	호 주	키르기즈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 탄	기 타
	5,208	3,880	3,488	430	406	7,438

- 재외동포(F-4) : 363,632명, 영주(F-5): 122,178명, 방문취업(H-2): 89,510명
- 한중수교 이후 친척방문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한정→ 1994년에는 50세로 완화→ 2004년, 고용 허가제가 시행과 함께 25세 이상의 젊은 연령층 입국 허용 등으로 고연령층 중심으로 입국
- 민간의 역할 : 지역주민 차원의 사회통합, 복지 등의 지원 활동 강화의 필요성 대두 →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참정권제한 반대

III. 변화하는 동포사회 환경 : 급증하는 차세대

◎ 중국 출신 이주청소년의 급증에 따른 차세대의 사회적응 문제 대두

< 부 또는 모의 국적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

(단위 : 명)

전체	베트남	중국	중국 (한국계)	필리핀	캄보디아	미국	일본	태국
289,529	99,398	52,030	41,369	24,450	11,881	10,477	8,492	5,386
구성비	34.3%	18.0%	14.3%	8.4%	4.1%	3.6%	2.9%	1.9%

출처: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부모 중 일방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문화가족 출신(결혼이민자 가족 배경)의 청소년과 차별되는 체류 여건
- 민간의 역할 : 차세대 교육지원을 위한 공익 및 연대활동 확대

III. 변화하는 동포사회 환경 : 재외동포청의 출범

- ◎ 최근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 ◎ 최근 출범한 재외동포청에는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전담조직이 부재
- 민간의 역할 : 신설된 재외동포청의
국내 체류 동포 사업 촉구



뉴스룸 | 최신기사

동포단체들 "국내체류 동포 위한 전담조직 있어야"

송고시간 | 2023-06-12 16:29

성도현 기자
기자 페이지

| 국회서 기자간담회 열고 기본계획 수립, 시행령 제정 등 촉구



재외동포청의 국내 체류 동포 지원정책 촉구 기자간담회
[촬영 성도현]

IV. 최근 주요 현안들 : 출입국 문제

◎ 중국동포에게 적용한 차별적인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정책 폐지

- 다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결혼이민자나 또는 한국 국적취득 가정을 중심으로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실제 지역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포의 한국사회 통합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음
- 중국 및 구소련지역 거주 동포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 정책은 오늘날 한국 체류 중국 및 구소련지역 거주 동포들을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차원에서 한국사회로 통합되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 재외동포(F-4) 영주권전치주의 적용 폐지

◎ 재외동포(F-4) 단순노무 취업제한 폐지

- 과거의 일시체류형의 단순노무분야 외국인근로자 중심에서 거주, 영주권자, 재외동포 등 정주형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동포를 한국의 지역사회 “주민”의 관점에서 설게 필요함
- 또한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형태의 가구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생활하며 체류하고 있으며, 이에 동포 중도입국 청소년 등 동포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청되고 있음

IV. 최근 주요 현안들 : 차세대 사회적응의 문제

- 중국 출신 청소년들의 근로경험 비율(19.2%) : 타 국가 출신 청소년 비율인 18.0%와 비슷하나, **평균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27시간으로 타 국가 출신 청소년 집단의 18.6시간보다 8시간가량 더 많음**
- 근로 중 다른 나라 출신이란 이유로 **차별을 한 달 평균 1차례 이상이라고 응답한 중국 출신 청소년들의 비율은 26%로 타 국가 출신의 11.7%와 비교해 월등히 높음**
- 중국 출신을 포함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10명 중 한 명 꼴로 **진로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주요인으로 정보 부족과 한국어 실력의 부족**
-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 응답자들 중 자신과 부모님 모두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경우는 58.4%인 반면, **자신은 원치 않았으나 부모님이 원해서 들어온 경우는 25.9%를 차지**
- **한국어 실력에 대한 고민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거리**
- 고연령 집단에게는 한국어 실력(32%)과 함께 **진로문제(29%)가 최대 고민거리**
- 한국 **영속 거주 희망 비율은 중국 출신이 30%에도 못 미친 반면, 타 국가 출신은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

IV. 최근 주요 현안들 : 차세대 사회적응의 문제

-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 열 명 중 한 명은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
 -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자아정체감 모두 중국 출신과 비 중국 출신 간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사회적 위축에 있어서 중국 출신이 타 국가 출신보다 높게 나타남**
 -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으로 연령 및 출신국가 불문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꼽음
 - 이밖에 직업 기술 훈련, 취미활동 지원, 한국사회 및 문화 적응 프로그램, 진로 및 적성 탐색 프로그램 등을 꼽음
 - 중국 이주배경 청소년 60%가량이 희망하는 **최종학력으로 '2년제 대학 이상'으로 응답**
 - 정규학교 입학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 출신이 22.6%, 타 국가 출신이 23.1%로 조사
 - 지원기관 및 센터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내용이 어렵고 흥미를 못 느낀다는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의 비율이 타 국가 출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 ❖ 출처: 배상률 외 (2018).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IV. 최근 주요 현안들: 종교단체의 非法 활동 견제장치 부재

◎ 서경석 목사, “재한중국동포 국적 취득 간이화 추진”

“재한중국동포 국적 취득 간이화 추진”...중국동포리더 간담회' 열려

✎ 이동렬 기자 | ⓒ 승인 2023.05.07 11:30 | 댓글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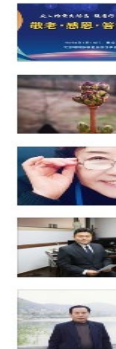


“재한중국동포 국적 취득 간이화를 추진하고, 중국동포 취약증을 돌봐주며, 조선족복지센터를 세우자”는 취지로 진행된 ‘재한동포리더 간담회’가 재한동포리더연맹(이하 ‘연맹’, 공동대표 김호림/이화준)의 주최하에 지난 5월 6일 오후 2시 구로구 구로5동에 위치한 ‘꿈이있는교회’에서 열렸다.



재한동포리더 간담회 회의장(이하, 사진=이호국 기자)

최신뉴스



포는스

지금 우리 동포들은 세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첫째는 동포들이 각성하고 동포들의 힘을 모으는 일입니다. 이 서명운동에 수천명이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포들이 이 운동을 위해 <조선족사회발전연합>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려면 매주일 만나서 계속 회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꿈이있는 교회>에 매주일 참석해서 같이 만나 국적취득운동을 위해 열심히 협의해야 합니다.

둘째는 지금 동포들에 대한 가짜뉴스가 범람해서 동포들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조선족에 대한 가짜뉴스가 사실이 아님을 열심히 반박하고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셋째는 한국교회에 조선족과 고려인을 위해 서명해 달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서명운동에 동참하려면 조선일보에 몇 차례 5단 광고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도 우리가 조달해야 합니다.

IV. 최근 주요 현안들: 종교단체의 非法 활동의 견제장치 부재

◎ 사교의 불법적 난민신청 개입

- 동포사회 내부의 중국 국적자의 종교를 사유로 한 허위난민 신청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 절대 필요 → 동포단체의 자정활동 및 캠페인 등이 필요
- 출입국 행정사 및 여행사의 허위난민 신청에 대한 불법적인 개입 행위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강력한 경고 필요

1994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난민인정신청 건수 기준
상위 5개국의 난민업무 현황



국적별 난민업무 현황

(단위: 건)

구분 국적	난민인정심사			이의신청		
	신청	심사완료	철회	신청	심의완료	철회
전체 누적	73,383	45,935	19,805	34,421	28,724	1,171
중국	7,452	4,116	2,597	2,867	2,345	140
카자흐스탄	7,181	3,652	3,124	2,479	2,086	129
러시아	6,923	3,418	2,918	2,169	1,610	146
파키스탄	6,613	4,926	1,206	4,275	3,681	137
이집트	5,063	3,933	693	3,435	3,036	83
기타	40,151	25,890	9,267	19,196	15,966	536

IV. 최근 주요 현안들: 허위 사적 단체의 문제

◎ 허위 및 과대포장 동포단체 준동

- 단체의 기준이 없음: 일정 활동, 회원수, 예산 등
- 허위 및 빈껍데기 사단법인의 문제

비영리빈간단체지원법: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날 행사에는 발제자 외에도 강권(주식회사 중화주류 대표), 김금화(위즈그룹 대표), 김봉규(중국동포한마음연합 총회장), 김성우(주식회사 JCY글로벌 대표), 김용(중국동포연합중앙회 수석부회장), 김조영(법무법인 나라 이사), 김학선(재한동포향우회 부회장), 박문권(한국귀한동포총연합회 부회장), 신흥범(꽃망울조학장학기금회 회장), 엄지연(중국동포연합중앙회 수석부회장), 윤명옥(위즈그룹 리더), 윤수련(사단법인 조선축사회발전연합 사무장), 이동렬(동북아신문 대표), 이호국(전YBTV주한국사무소 대표/길림신문 해외판 상임고문), 임가연(인터체인지 회장), 임도경(주식회사 우리동행 대표), 장학천(간도연대 대표), 지명광(공정연대 지부장), 최려나(재한동포향우회 사무장/엔젤그룹 회장), 하주현(글로벌가족지원연합회장), 등이 참석해서 재한중국동포사회의 현안을 논하면서 “연맹”이 추진코자 하는 재한조선족 사회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응원과 지지의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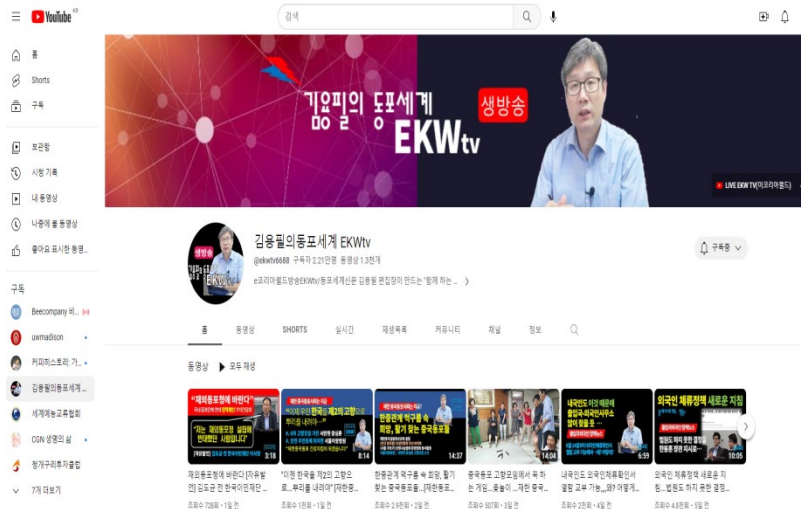
중국동포리더 간담회 참석자들

V. 동포사회 대응 여건의 변화 : 급격하게 위축된 언론환경

◎ 언론환경의 변화: 전통적 동포언론활동의 축소 및 뉴미디어(SNS) 환경에 적합한 언론정보 미흡

- 2018년: 동북아신문(사장/대표 이동렬), 중국동포타운신문(발행인 최승재), 한중동포신문(발행인 송상호), 한중법률신문(대표/발행인 황용), 한민족신문(대표/발행인 전길운), 흑룡강신문 중국주간(대표 나춘봉), 길림신문 해외판(대표 전춘봉), 중국동포신문(대표/발행인 김대의), 동포세계(대표 김용필), 동포투데이(대표/발행인 정경화), 한중뉴스(발행인/대표 박영철), 차이나뉴스(발행인 박윤영), 이외 한문(漢文)판 신화신문(대표/발행인 조명권) 등이 있으며, 잡지로 동포시대(대표/발행인 김청호), 중국동포소식(대표/발행인 이용후) 등

- 현재: ?



V. 동포사회 대응 여건의 변화 : 차세대 동포단체의 부재

◎ 기존 차세대 관련 동포단체 활동 위축:

-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원인?
-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원인?

◎ 새로운 차세대 공론장 부재: 사회로 진출한 차세대들의 교류의 장

- 한국사회 정착의 롤모델 역할이 없음 (조선족임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숨김)
- 기성세대와 어린 세대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못하고 있음

◎ 한국사회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응할 지주적 역할을 할 차세대 육성의 노력이 필요함

V. 동포사회 대응 여건의 변화 : 동포사회의 특징이념 및 분파성

◎ 동포단체 활동의 특징이념 표방의 문제



[#탈중국공산당] 조선족에 대한 인권침해 양심선언 중국 공안 출신 조선족 기자회견



중국공산당의 복장을 입고 대한민국 내에서 중국공산당 100주년 행사를 하고 있는 조선족 단체

❖ 비영리빈간단체지원법: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 동포단체간의 끊임없는 소송과 비방

- 선거철의 경선후보지지 경쟁

V. 동포사회 대응 여건의 변화 : 동포사회 지원단체의 역할 부족

- ◎ 서울외국인지원센터 외에 이렇다 할 공익적 지원단체가 부재
 -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중 역할을 하는 기관 없음
 - 종교단체 중심의 지원활동만 명맥 유지
 - 깔꿈이봉사단, 자율방범대 등을 제외한 여타 봉사단체활동 여부?

- ◎ 동포들의 취미 및 문학활동의 주류사회 진출 지원 부족

- ◎ 차세대에 대한 지원과 투자 부족: 차세대 본인의 개인능력 유무 여하에 따라..

- ◎ 동포단체 의견수렴과 소통 공론장 역할을 하는 언론 및 연합활동의 부재

VI. 토론: 동포단체의 대응

재한중국동포사회는 변화된 시대의 당면한 과제에 적합한 행동과 변화가 요청됨

언론단체 :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문현택(한중포커스), 조동우(한중데일리)

시민단체 : 김봉규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최재용(한국다문화이민행정협회)

학술단체 :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문제연구소)

문학단체 : 김경애 (중국동포문인협회)

여성단체 : 박옥선 (CK여성위원회)

지원단체 : 김동훈(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차 세 대 : 김부용(인천대), 박동찬(경계인의 몫소리연구소)

교육단체 : 문민(서울국제학원장), 이남철(전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

삼강포럼 : 정인갑, 장경률, 곽재석